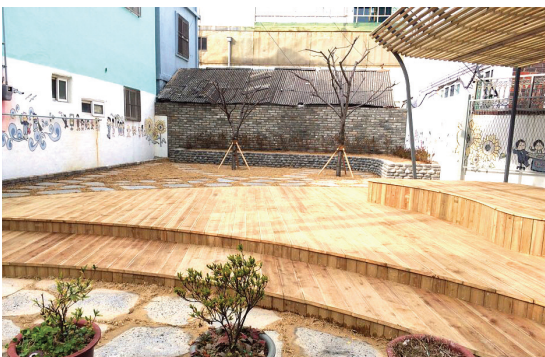




라이트 프로젝트 '파란 구름'
허수빈 작가

유독 어두운 대평동 골목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활용한 구
름 형태의 라이트 작품



쌘지공원 프로젝트, 백성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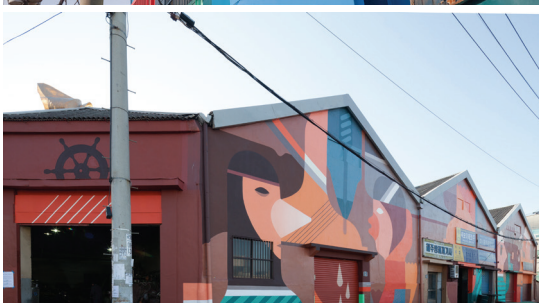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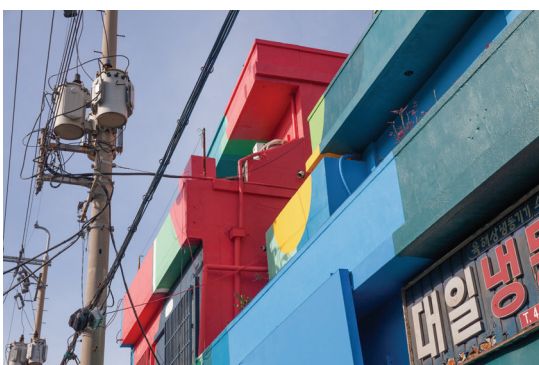
녹지가 부족한 대평동에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작은 공원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대동대교맨션 아트벤치 '관계-어울림' 김성철 작가
기어를 활용한 아트벤치 작품



대동대교맨션 아트벤치 '두드림' 김상일 작가
강강이망치를 두드리는 형태의 아트벤치 작품



페인팅시티 월아트 프로젝트, 정크하우스

낡은 창고나 공업사의 벽면을 페인팅 해
거리에 활력을 주고 지역을 산뜻한 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마을버스 로터리 아트벤치 '쉼' 조형섭 작가
수리조선마을인 대평동을 상징하는
닻을 활용한 아트벤치 작품

강강이 마을의 변신, 어떤 가요?

2016년 12월부터 시작했던 공공예술작
품 1차 설치작업이 1월초 즈음 거의 마무리되
어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독 어두운 마을
의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총 8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라이트 프로젝트 '파란
구름'부터, 앉을 곳이 전혀 없는 마을버스 정
류장에 우선 적으로 설치한 아트벤치 작품 3
점, 녹지가 없는 강강이마을에서 허파역할
을 하게 될 쌘지공원, 낡고 우중충한 건물들
이 산뜻한 색상의 건물들로 탈바꿈한 월아
트 프로젝트까지. 해가 바뀌는 사이 강강이
마을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설치 장소**
에 대한 이야기부터 작품에 대한 **주민 분들**
의 반응, 자신의 작품과 마을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까지 강강이마을 공공예술작품을 이
모저모 살펴봅니다.

* 공공예술작품은 2017년에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깡깡이마을 푸른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

쌈지공원, 재탄생하다

지난 1월초, 쌈지공원이 재정비 되었습니다. 본래 공원이었지만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곳이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현재 쌈지공원이 조성되는 땅은 본래 세 가구가 옹기종기 살던 곳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 지방으로 다 떠나고, 오랫동안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쥐, 바퀴벌레, 고양이들의 서식지가 되어 악취가 풍기는 등 주변 환경이 너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관내 통장인 제가 민원을 넣어 영도구청과 함께 폐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영도구청과 남항동주민센터, 관내 통장인 제가 혼연일체가 되어 집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폐가 자리를 좋은 목적으로 써보자는 의견을 집 주인에게 전달하고 동의 각서를 받아 해당 주택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뽕나무 두 그루, 원형 벤치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후 박기정 前 동장님께서 오십견에 좋다는 운동기구를 두 개 설치하여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설이 낙후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평동이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대상지가 된 후 대평동마을회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예술 작가가 회의를 거쳐 기존 쌈지공원을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원의 용도와 녹지 조성 방법 등 여러 번의 회의와 방향 수정을 거쳐 더욱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쌈지공원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쌈지공원에서 작은 공연을 즐기거나 많은 인원이 모여 앉아 소통할 수 있도록 바닥에 나무 데크를 깔았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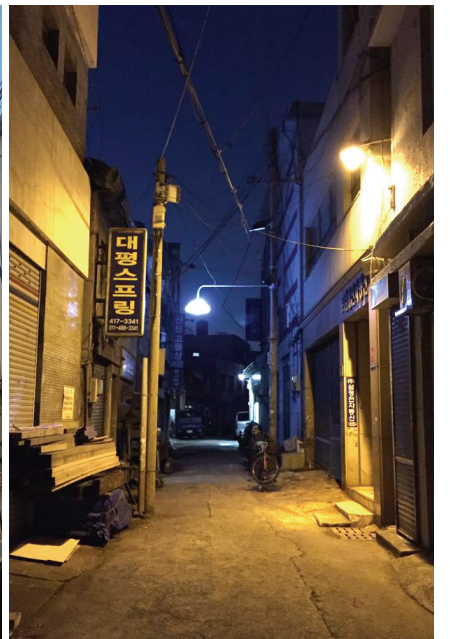
앞으로 봄이 되면 마을 주민과 녹지 조성 전문가가 함께 쌈지공원을 녹지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쌈지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백성준 작가님은 “워낙 공간이 좁다보니 나무만 심어서 녹지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아예 벽면에 펜스를 설치해 덩굴식물을 심어 벽면까지 녹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쌈지공원은 대평동에서 유일하게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쌈지공원이 앞으로도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가꾸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멋진 쌈지공원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공공예술작품 ‘말말말’



1월말이 되자 마을 곳곳에 벤치나 가로등이 들어섰습니다. 마을을 장식하는 공공예술작품에 주민분들도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삭막한 대평동을 동화 속 공간처럼 보이게 하는 ‘구름 모양 조명’입니다. 이 작품은 허수빈이라는 예술작가님이 만들었습니다. 총 8곳에 설치했고 앞으로 추가로 4곳에 더 설치한다고 합니다. 대평동의 5개 통장님들과 허수빈 작가님, 짱짱이예술마을 사업단 분들이 우선적으로 설치할 가장 어두운 곳을 선택하기 위해 많은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40대 중반 여성인 대평동 주민 이 모 씨는 “특히 어두운 길에 설치가 되었더라. 밤에 다닐 때마다 불안감이 컸는데 조명 빛과 동네가 잘 어우러지고 구름 모양 디자인이 재밌고 보기 좋다”며 만족해했습니다.



▲ 낮에는 구름, 밤에는 조명이 되는 재밌는 조명 작품



▲ 누군가 버리고 간 자개농을 활용해 의자 부분을 장식한 로터리 부근 아트벤치

마을버스 정류장 두 곳에도 작품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동대교맨션 후문 쪽에 2개, 옛날 대평동파출소 쪽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 로터리에 1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종점 로터리에 있는 벤치는 조형섭 작가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영도 대평동을 상징하는 닳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며 마을에서 흔한 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평동에서 일하고 있는 50대 남성 김 모 씨는 “**빠대로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깔끔하며 녹이 슬지 않아 미관상 더러워 보이지 않으니 좋다**”고 합니다. 50대 여성 이 모 씨는 “**폐 자개농을 활용하여 동그란 의자 속에 넣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좋다**”며 감상을 말했습니다.

대동대교맨션 후문에 설치된 벤치는 배, 톱니를 사용하여 대평동을 잘 상징화 했습니다. 오른쪽은 김성철 작가가, 왼쪽은 김상일 작가가 만든 것인데 김성철 작가님은 톱니를 사용해 협동과 화합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상일 작가님은 짱짱이 망치를 두드리리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짱짱이마을이라 불리는 우리 마을에 참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40대 중반 여성인 대평동 주민 강 모 씨는 “**실 곳이 없었는데 벤치가 생겨서 좋다. 깔끔하고 심플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품들은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40대 초반 남성 김 모 씨는 “**조명이 은은하게 비쳐 사람들에게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이종렬 주민기자



◀ 밤이 되면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는 대동대교맨션 후문 아트벤치 (좌측 김상일 작가, 우측 김성철 작가)

예술가를 만나다

월아트 프로젝트 작가 '정크하우스'

정크하우스(Junk House)

스트리트 아트(벽화예술)를 하는
소수영 작가의 예명.
낡은 것을 의미하는 정크(Junk)에 집을
의미하는 하우스(House)를 붙여 낡은
집들, 건축물 등에서 영감을 얻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나타냄

이제는 영도다리를 건널 때마다 보이는 (주)동명기술 창고의 그림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강강이에술마을 운영팀장으로서 진행을 맡았던 '페인팅시티 - 월아트 프로젝트'는 건물 한 곳 한 곳 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나에게서는 강강이마을을 적응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그림이 다 그려진 거리를 지날 때면 처음 이 마을에 오던 날을 돌이키며 다시금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서울이 연고지만 따뜻한 날씨가 좋아 부산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월아트 프로젝트 참여 작가 '정크하우스'를 오랜만에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 및 글·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 이대한 운영팀장



▲ 강강이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과 수리 부품 등을 표현한 디자인



▲ 강강이마을 월아트 작품의 주요 배경색인 갈색과 오렌지색

작업 도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하루하루가 다 재밌고 힘들고 전쟁 같고 그랬어요. 큰 창고를 포함해 8개의 건물을 작업하는 동안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어요. 건물이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면 다른 건물을 해야 하고 하니까 적응을 다시 해야 했던 거죠. 사람도 각자 성격이 다른 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만의 개성이 분명해서 대화하듯이 조금씩 힘겨루기도 하며 그렇게 건물들과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건물들이 마치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서 작업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의 작업과 달리 강강이마을은 건물 자체를 색으로 감싸는 작업이어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쓸 게 많았죠. 특히 대일냉동공업사와 현대터빈 건물은 기초 페인팅이 안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 페인팅 하는 시간보다 건물을 복구하고 낡은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더 오래 걸렸어요. 아마 스태프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웃음) 그렇지만 덕분에 같이 작업한 스태프들과 더 돈독해졌어요. 다른 프로젝트 때보다 더 정이 가요. 요즘도 가끔씩 만나서 작업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회포도 풀어요.

무사히 작업을 마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작품 곳곳에서 강강이마을의 풍경을 담아내려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모습들을 나타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강이마을은 배를 만드는 곳이라기보다 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리에 필요한 부품들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어요. 작업 스케치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배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다들 머리에 작업모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도 (주)동명기술 창고 건물에 표현해봤습니다.

강강이마을에서 월아트 작업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색'이 강조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아트 프로젝트의 주요 콘셉트 자체가 색으로 골목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색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어요. 각 건물마다 개별적인 색을 부여해 건물에서 생동감이 느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거죠. 영도에 탐방을 와서 먹었던 음식들, 혹은 사람들한테서 받았던 인상에서 주로 영감을 받았는데 다른 곳보다 인상이 강렬하고 진하면서 깊다는 느낌을 받아서 색을 고를 때 명확하고 진한 색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강강이마을은 갈색과 오렌지색이 그 마을을 표현하는 색깔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대평동이 공업사가 많은 지역이니까 금속과 관련된 작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보통 금속을 칠할 때 바래지 말라고 갈색 페인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금속이라고 하면 사실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저는 그 색깔을 살리면서 그런 차가운 느낌들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 정크하우스와 함께 작업한 스태프들

예전 인터뷰에서 ‘일반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꿈꾼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갯강이마을 주민분들이 정크하우스의 그림을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나요?

제가 스트리트 아트(거리 예술)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거리에서 예술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미술관에서 보는 예술도 좋지만 거리에서 우연치 않게 만난 작품들을 보며 예술과 함께 공존하는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리 예술도 오래가는 작품이 아니다 보니 더 값어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도 좋구요. 내가 사는 공간이 혹은 거리가 예술로 살아난다면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출근하시는 분들이 더 즐거워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새 옷을 입은 기분일 거예요. 갯강이마을에 계신 분들은 매일 금속을 보며 거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 작품 속 다양한 색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기를 바라죠. (웃음)

앞으로의 갯강이에술마을 사업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요?

갯강이마을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관광지처럼 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갯강이마을을 투어하면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풍경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새롭게 얻어가는 소중한 경험들이 많아요. 일반 관광객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투어를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활력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이미 갯강이에술마을 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김권진, 신혜미, 이대한



▲ 현재 부산 장전동에서 작업 중인 정크하우스와 인터뷰

대평동 용어 사전 [‘닻’]



감수·문호성 (선박설계기술사)

“바다에 있으며 다리가 하나인 것도, 두 개인 것도, 네 개인 것도 있는 것은?”

신기한 해양생물을 떠올리게 하는 수수께끼처럼 들리지만 답은 영어 그대로 앵커(Anchor)라고 부르기도 하는 ‘닻’입니다. 대평동에서 닻은 커다란 것 중 사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닻이 어떻게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파도를 견디며 그렇게 큰 배를 지탱하는지 알게 되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닻은 바다에서 배를 일정한 지점에 머무르게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강철을 주재료로 하는 닻은 작은 어선에 사용하는 것만도 무게가 100kg 이상이며, 대형 선박들은 닻의 무게만 10톤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닻은 해저면에 박혀 배가 바람이나 물살에 떠밀려 가지 않고 일정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지탱하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선 닻의 ‘무게’가 큰 몫을 합니다. 그 때문에 배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무게의 닻을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평동에서 고철을 판매하고 있는 세명종합상사에 가보았습니다. 강철 덩어리인 닻은 고철 중에서도 제법 값이 나가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닻의 갈고리 부분은 암(arm), 기둥 부분은 생크(shank), 기둥에 직각방향으로 붙어 있는 봉 부분은 스톡(stock)이라고 합니다. 닻은 봉 부분인 스톡의 유무에 따라 스톡(stock)앵커와 스톡리스(stockless)앵커로 나뉩니다. 스톡앵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닻 모양으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스톡이 바닥과 나란해져 스톡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갈고리 부분이 쉽게 해저면에 박힙니다. 메산(山)자 모양인 스톡리스앵커는 말 그대로 봉이 없는 앵커란 뜻입니다. 갈고리 부분이 회전 가능해 어떤 방향으로 내려도 바닥에 잘 박힐 뿐만 아니라 스톡앵커에 비해 부피가 작아 보관도 쉽습니다. 오늘날 대형선들은 거의 다 스톡리스앵커를 사용합니다.

닻은 오랜 옛날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주로 줄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닻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한 자로는 정(碇, 碇), 우리말로 ‘돌닻’이라 불렀습니다. 나라와 문화는 달라도 배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닻을 사용했기 때문에 닻은 곧 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항구를 표시할 때 닻 모양 기호를 넣고, 해군의 깃발이나 선원 모자 등에 닻 문양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작은 몸으로 거대한 선박을 지지하는 닻의 투지, 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일하는 닻의 봉사정신, 더러운 진흙에 자신의 얼굴을 박는 희생정신 등 선원이 가져야 할 정신을 일컬어 ‘앵커 스피릿(Anchor Spirit, 닻과 같은 정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닻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은 단순히 배를 정박하도록 해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국기 휘날리며’

영도국기공장 조성희 사장(76)

※ 본 기사는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으로 인터뷰 당시의 어감을 그대로 살려 작성하였습니다.



▲ 영도국기공장 내부

대평동에서 영도국기공장을 한 지 30년이 넘었네. 고향은 서울 답십리인데 1965년 부산에 와서 나염공장을 20년 정도하다가 1985년에 대평동에 와서 국기를 만들기 시작했지. 국제시장에서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뭘 할까 싶었는데 대평동에서 국기를 만들면 잘 팔리겠더라고. 그때 대평동이 원양이며 조선소며 대단했거든. 우리 집에선 인쇄되는 건 다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배에서 사용하는 만국기, 국제 신호기, 배에 들어가는 풍어기(낭만기) 같은 걸 주로 만들지. 지금도 90%는 배에 납품하고 있어.

주로 만드는 건 만국기야. 만국기가 뭐냐면 모든 나라 국기를 다 만국기라고 하는데 그냥 국기 하나하나도 다 만국기라고 해. 우리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게 200가지 정도 돼. 운동회 할 때 학교 운동장에 다는 것도 만국기라고 하잖아? 그건 사이즈가 작은 거고 우리 집에선 주로 배에 다는 걸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어업하면 일체 우리나라 국기를 배에 달아야 하거든. 그걸 만들어 파는 거지.

우리나라 국기는 꾸준히 나가는데 그거 못지 않게 외국 국기도 많이 팔려. 배가 외국 항구로 들어갈 때는 꼭 그 나라 국기를 달아야 하거든. 그러려면 한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미리 우리 집에 애기를 해서 그 나라 국기를 준비해서 가야해. 잘 나가는 나라는 미리 만들어 놓지.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마셜, 몰타 이런 국기는 잘 나가. 잘 안 나가는 나라는 주문이 들어올 때 제작하지.



앞에는 그 나라 국기를 달고 뒤에는 대한민국 국기를 다는 거지.

배를 신조하고 처음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바다에 나가서 고사를 지내는데 그때 다는 깃발이 풍어기야. 20년 전만해도 하루에도 수십 척 씩 어선이 나가고 하니까 풍어기 장사가 잘 됐어. 배 한 척이 수 십장씩 달고 나가고 그랬거든. 요새는 일체 그런 게 없어. 서로 부담된다고 잘 안 해. 어선도 많이 줄었어. 1/10은 줄어든 것 같아.



주로 다른 선주들이나 친구들이 예식장에 가면 축의 하듯이 앞으로 고기 많이 잡으라고 달아주는 거야.

처음 이 일을 시작하고 10년 정도는 사업이 잘됐어. 지금보다 20~30배는 더 벌었던 것 같아. 지금 100만원 벌면 그때는 2~3천 벌고 그랬던 거지.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 IMF때야. 그때는 1년에 구정과 추석 이렇게 두 번 수금을 했어. 6~7개월 동안 물건 해주고 그때 돈을 한꺼번에 받는 건데 그 안에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야. 그런 게 한 두 곳이 아니라서 몇 억을 떼였지. 70년 이상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시기였어.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애들이 있으니 힘을 내서 산거야. 그때 대평동에 자살하는 사람 많았다고 들었어. 돈을 못 줘서 죽고, 돈을 못 받아서 죽고. 그래도 그때는 일이 많으니까 괜찮았어. 요즘이었으면 문 닫는 거지. 2남 1녀가 있는데 국기공장 하면서 대학 보내고 출가도 시켰어.

사업을 시작한 1985년에만 해도 인쇄 기계가 없었어. 모든 걸 다 손으로 했지.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고부터는 컴퓨터를 못 만지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20년 전부터 컴퓨터를 배웠어. 그때가 56살 때고 환갑이 다된 나이였지만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지금은 컴퓨터로 자동출력을 하고 있지. 앞으로도 몸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하고 싶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예전에는 스크린 판도 다 직접 만들어서 밑에 원단 놓고 잉크 붓고 해서 찍어냈어.

독자
기고

삶과 바람

글·대평동노인회 김성호 부회장



한 생명이 태어나 엄마 젖을 먹고 기어 다니다 크면 걸음마를 하고, 유치원을 다니면서 글을 배우고, 점차 키가 커가며, 초등·중등·고등·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여 군인 생활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사회인이 된다.

인생이란 흐르는 물과 같이 살아가는 것일까. 세월은 빠르기도 하다. 가장이 되어 자식도 키우면서 회사원이 되기도 하고 공무원도 하면서 살아왔다. 자식을 출가시키고 귀엽게 자라는 손주도 보면서 보통 사람의 삶을 지탱하면서 인생을 보내는데 운명의 장난일까. 타고난 명이 짧은 것일까. 20여 년 전 내 아내는 52세이던 해에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다.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며 살아왔던 사랑하는 내 아내여.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온 대평동은 너무나 작은 동네이지만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고 철공소도 많고 수산회사도 많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60여 년 동안 살다보니 진짜 내 고향이 되었다. 세월이 빨라 내 나이가 80살이 되었다. 예전에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많아 마을을 위해 봉사도 하면서 살아왔었다. 대평동에는 대평동마을회가 있다. 나는 마을회에서 30여 년 간 회원으로 일을 보아왔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수산자원이 줄어 점차 조선소, 철공소도 불황을 맞으며 대평동 전체가 삶이 어렵게 되어 버렸다. 나 또한 타지로 이사를 가서 살지만 오래 살아왔던 대평동을 잊을 수 없다. 대평동이 강강이마을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다. 조그마한 대평동이 조선소 발상지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키운 조선업의 선진기지가 그 옛날 조그마한 조선소가 있어 왔던 대평동임을 정부에서 인정받고 전시관도 만들고 강강이마을 걷기 코스도 만든다하니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 참에 아름다운 대평동으로, 잘사는 대평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자갈치, 영도대교, 용두산이 한 눈에 보이는 북쪽해안을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바닷가에 팔각정도 만들고 강강이 걷는 길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관광객도 오도록 유치하였으면 좋겠다. 영도문화원과 대평동마을회가 합심하여 아름다운 대평동, 관광객이 오는 대평동을 만들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한다.

기고면에 실린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사대평」에서는 살아온 이야기, 의견 등이 담긴 기사를 받습니다.

친바람 봄눈 날엔 추어탕 '대평추어탕'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생각나는 추운 겨울, 대평동에는 맛좋은 추어탕집이 한군데 있습니다. 푸짐하게 담긴 시래기의 시원함과 고소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이곳은 정식이 주를 이루는 대평동 음식지도에 색다른 점 하나를 찍는 곳입니다.

아낌없이 담겨있는 추어탕 한 그릇을 드셔도 만족스러울법한데 “산채비빔밥을 드시면 추어탕 공짜!”라는 담벼락에 소박하게 적혀진 홍보문구를 따라 산채비빔밥을 드신다면 그와 함께 달려오는 추어탕 한 그릇 또한 만족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밀반찬 역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제각기 제 맛을 뽐내며 입맛을 돋웁니다.

매서운 겨울추위에 지친 몸을 위해 오늘은 보양식 추어탕 한 그릇 어떠신가요?

글 및 사진·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 이혜미 재정팀장



독자
기고

대평동
맛집
탐방기

100세까지 강강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복부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허리 디스크 예방 및 치료 체조로서 6개월~1년 이상 꾸준히 하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오니 건강을 위하여 운동합시다.



1.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30도 정도 일으킨 자세로 약 5초간 유지 (10~20회 반복)



2. 똑바로 누운 상태로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 운동 (천천히 20회 반복)



3.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5초 정도 유지 (10회 반복)

글·이춘옥 주민기자

건강
상식

문화사랑방 시즌 2 예고

지난해 무더운 여름부터 가을까지 함께했던 문화사랑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모임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차 마을동아리 모집 안내 (예정)

- 기간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 장소 갯강이예술마을 생활문화센터 (구 대평동사무소 건물 2층)
- 대상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 누구나 가능

□ 모집 분야

1. 마을해설사 되기 과정

평소 마을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면 무조건 신청해 주세요

대평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예술을 함께 공부하고, 방문객에게 마을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모이는 날 : 매주 화요일(총 10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일정 변경가능)

- 모집 인원 : 10명~20명

2. 마을가꾸기 동아리

평소 '식물 가꾸기'나 '수공예품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주세요.

조경 예술가와 함께 화분을 직접 만들고 식물도심어 동네를 파릇파릇하게 가꾸는 동아리입니다.

- 모이는 날 : 매주 목요일(총 10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일정 변경가능)

- 모집인원 : 10명~20명

3. 마을만들기 동아리

마을 축제나 문화사랑방을 함께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무조건 신청해주세요

마을에 필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갯강이예술마을 사업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동아리입니다.

- 모이는 날 : 매주 금요일(총 10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일정 변경가능)

- 모집인원 : 10명~20명

4. 그밖에 댄스동아리, 시쓰기 동아리, 신문만들기 동아리 등은 추후 모집 예정

※ 동아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단 방문 또는 051-418-18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NFO

기자모집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은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 있는 대평동 주민분께서는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를 받습니다. 긴 글 짧은글 상관없이 후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갯강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6, 2층

ydart2016@hanmail.net

광 고

「만사대평」에서는 생활지면광고를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축하, 돌기념, 고희기념, 업체광고 등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소식들을 마을신문을 통해 전해보세요.

- 광고 게재료는 1만원입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영도구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하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